

흔히 어떤 나라가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자리잡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나라의 물론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전, 발전과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로 된다.

아시아대륙 동쪽 가운데에 자리잡고있는 조선은 북부는 아시아 대륙과 잇닿아있고 동서쪽은 태평양과 면해있다. 주변 나라들을 보아도 압록강과 두만강너머에 중국과 로씨야가, 동해너머에 일본이 자리잡고있는 등 대국들의 한복판에 있는것이 조선이다.

한마디로 조선반도는 대륙으로 통하는 발판, 대양으로 나가는 길목이나 갈다고 할수 있다.

이처럼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고 지하자원이 풍부한것으로 하여 조선은 오래전부터 유미열강들이 리해관계를 다투는 각축전장으로 되어왔다.

근대에 들어와 청나라는 조선을 자기의 영향하에 두기 위해 간섭을 뻗쳐왔으며 일제기 《정한론》을 들고나온 일본은 조선을 저들의 《생사가 걸린 땅》이라고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바다로 침입하곤 하였다. 한편 《남하정책》 실현에 나섰던 짜리로씨야도 조선에 눈독을 들이었으며 태평양너머에 있는 미국은 조선을 저들의 아시아와 대륙결공에 유리한 《단도》로 보면서

## 반미대결전의 강력한 보루, 더욱 커진 전략적지위

군침을 흘리었다. 이미 1866년에 《서언》호에 이어 1871년에 는 합대까지 동원하여 조선침략의 길에 나섰던 미국은 이 시기 일본을 적극 부추기는 방법으로 저들의 리권을 쟁گیری고 하였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지인필에 1894—1895년에 있는 청일전쟁과 1904—1905년의 로일전쟁에서 이진 일본은 조선에 대한 침략을 더욱 강화하였다. 하여 조선은 1905년 11월 망국적인 《을사5조약》과 1910년 8월 《한일합병조약》의 날조로 일본의 완전한 식민지로 굴러떨어지게 되었던것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고 국력이 약한탓에 겪어야 했던 약소민족의 눈물겨운 신세였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망과 함께 해방을 맞은 조선이 국가창건에 앞서 정규무력창설에 힘을 넣은것도 군력이 약해 남의 비참한 노예로 살아가 했던 민족수난의 피의 교훈으로부터 출발한것이었다.

오늘 조선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인 인공위성도 자체의 힘으로 싸출리는 행성의 몇 안되는 인공 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자

위의 든든한 핵억제력을 가진 군사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하여 오늘날 대국들과 어깨를 겨루는 강국으로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비상이 커졌다.

지금 세계적으로 대국의 패권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다. 지난 2012년 오바마행정부는 저들이 유럽과 중동에 매달려있 는동안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약화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다시 힘을 집중한다는 이른바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일명 《아시아회귀전략》, 《아시아재균형전략》)이라는것을 내뒀었다.

그 내용을 보면 아시아의 동맹국들, 지역국가들과의 정치, 외교관계를 강화하여 미국의 우호세력을 확대하며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협정》체결과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권대협정》확대로 이 지역나라들을 저들의 경제적영향권에 넣는다는것을 대 군사적으로 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해군무력의 60%를 투입하고 미싸일방위체계 구축과 《한》미일과 미일오스트랄리아 《3각군사공조》를 실현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재확립하 하고있다.

그러나 오바마정부의 이러한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은 조선의 대미핵대결공세와 주변 나라들의 패권경쟁을 비롯한 세계적인 도전으로 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있다.

미국은 자위적인 조선의 핵이 《위협》이라고 떠들면서 자국본토는 물론 유럽과 중동지역에 전개하였던 무력들까지 아태지역에 들이치는 한편 조선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노린 각종 명목의 군사연습들을 해마다 벌려놓고있다. 최근 《맞춤형억제전략》이 정식 적용되고있는 《울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의 강행이 그 한 실례로 된다. 조선이 핵 및 미싸일을 사용할 징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수단들을 동원하여 《선제타격》한다는것이 《맞춤형억제전략》의 골자이다. 미국은 그 무는 《징후》나 뉘니 하며 이 전략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조선에 대 한 핵선제공격을 감행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해에 미핵항공모함이 합동군사연습이라는 미명하에 조

선서해에 빠졌이 나타났던 사실과 미전략핵폭격기들이 조선반도에서 여러차례 핵폭탄투하연습까지 감행한 사실들은 《맞춤형억제전략》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해주고있다.

이에 맞서 조선은 자위적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는 적극적인 초강경대미공세로 맞받아 나아가고있다. 지난 8월 17일 조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침략전쟁연습책동은 값비싼 피의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핵전쟁연습들에 대처한 공화국의 자위적대응도 년례화, 정례화될것이라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런이어 실시된 조선의 전략 및 전술로케트발사훈련들은 조선의 경고가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었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조미대결은 조선이아말로 대륙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을 꺾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대미대결전의 강력한 보루라는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주고있다.

만일 전략적요충지에 자리잡고 있는 조선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

라크처럼 힘이 약하다면 횡포무도한 미국의 내정간섭과 침략전쟁을 불러오게 되고 동북아시아, 행성의 평화와 안전이 심히 파괴되게 될것이다. 핵보유국이 된 조선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한 거대한 공적은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눈길을 잠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오늘 갈수록 가려한 처지에 빠져들고있는것은 력대로 대국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사대와 굴종으로 살아가는 《한국》이다.

최근 미국과 조선반도의 주변국사이에서 그 무는 《균형》을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줄타기외교를 시도하던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점차 주변국과 대립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주변 나라들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요구대로 《THAAD》(싸드)의 《한국》배치를 추진하고있는것이 그러하다.

얼마전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가 처음으로 일본에 건너가 《북핵공조》와 관계개선문제를 심도있게 론의하고 일본의 《고노담화》검증을 계기로 중단하였던 외교국장급회담을 재개

한데 이어 8월 만파에서 진행된 《아세안지역안보연단》에서 《한》외교장관회담이 진행되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3각동맹구축과 대중국봉쇄를 목적으로 조선남해에서 벌려놓은 《〈한〉, 미, 일, 해상수색구조훈련》에 참가하고 중국주도의 《아시아가조 시설투자은행》설립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힌 사실 등은 정치, 외교적으로나 안보, 경제적으로 미국의 손락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는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맹백히 하건대 조선의 전략적지위는 그 누가 인정하고 인정 안한다고 하여 달라지는것이 아니다.

조선이 세계에서 열손가락안에 드는 당당한 핵보유국이 되고 그 운반수단까지 개발함으로써 그 전략적지위는 비할바없이 커졌다.

복잡다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조선이 노는 거대한 전략적 역할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리익만을 추구하는것은 군사안전진 판단이고 청맹파니격의 착오가 아닐수 없다.

자주조선은 시종일관 견지하며 침략적인 외세에 단호히 맞받아나아가는 핵강국 조선은 동북아 정세를 주도하며 대세의 흐름을 힘있게 추동해갈것이다.

재중동포 최 지현

지난 25일 공화국에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열렸다.

여기에서 각급 주권기관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여 《전향적12년제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일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가 하루동안에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되는 주요 의안을 토의하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채택한데 대해 서방언론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고있다.

하지만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우는 공화국에서는 너무도 폐사로운 일인것이다.

문득 수많은 아이들이 수장 시키고도 《세월》호특별법 제정이라는 의제를 놓고 허구한 날 입씨름으로 허송세월하고있는 남조선 《국회》의 실태가 떠오른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실종자유가족의 구제대책 마련을 위해 제정해야 한다던 《세월》호특별법은 아직도 5개월째 《국회》에 머물러있다.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재미동포들이 《세월》호참사 특별법제정과 남조선집권자퇴진을 요구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세월》호대참사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남조선집권자가 사태해결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재미동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남조선집권자가 민생을 운운하면서 《세월》호분례를 드는 론의하지 말자고 하고

## 판이 한 현 실

왜, 《국회》의 반수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이 유가족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절대 넘겨줄수 없다고 하느소발통의 고집을 세우기때문이다.

그때문에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은 아직도 제정되지 못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지난 5월초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법안》들이 종이장으로 쌓여있어 남조선 《국회》는 《빈손국회》, 《립법제로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고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이 하는 소리 또한 가관이다. 아무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식물국회》보다는 몸싸움을 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하는 《동물국회》가 오히려 낫다는것이다.

《레스링국회》, 《날치기국회》, 《란장판국회》라는 오명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던 과거의 몸싸움이 꿈처럼 퇴살이나 몸이 근질

거리는 모양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 이 말속에서도 인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저들의 불순한 당파적리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태도가 그대로 비껴 있다.

《세월》호특별법제정을 두고 여야간간에 입씨름만 벌려온 그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는 표락서니는 더 눈 뜨고 못 볼 형편이다.

《새누리당》출신 《국회》의원들을 놓고 보자.

지난 8월 21일 검찰은 부정 부패를 일삼던 《새누리당》의 조현룡, 박상은 등을 구속하기 위해 《국회》의원회관으로 출동하였다.

하지만 그 의원들은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손전화기를 들고 차를 타고 시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였다.

남조선의 한 언론의 말그대로 《맹만한 강력사범들 룡가할 정도의 치밀한 도주

국》, 《교란작전》을 펼치었던것이다.

《정치자금법》위반 등 10개의 부정부패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이 받아먹은 돈이 자그만치 12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고도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을 람용하여 《치외법권》을 행사하려는 의원들, 두고 여야간간에 입씨름만 벌려온 그속에서 《국회》의원들이 노는 표락서니는 더 눈 뜨고 못 볼 형편이다.

《새누리당》출신 《국회》의원들을 놓고 보자.

얼마전에는 《새누리당》출신의 이진 《국회》의장 박희태가 골프를 치면서 녀종업원을 성희롱한것으로 하여 경찰에 기소되었다.

일흔이 썩 넘어 늙어빠진 호박같은 박희태가 손녀벌되는 녀성을 희롱하였으니 색골망나니무리, 변태집단인 《새누리당》의 본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것이다.

이전 《새누리당》출신

으로 자기 제수를 성폭력한 김형태, 식당종업원인줄 알았다며 녀기자를 성폭행한 최연희, 지금 《새누리당》대표로 술집 녀종업원을 성희롱한 김부성 등 《새누리당》의 성희롱전과는 악성유전인자로 이어져온다.

오죽하면 남조선인민들이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은 《성폭력범행 공개교육을 받고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하였겠는가.

《세월》호참사의 유가족들은 특별법제정을 위해 길거리에서 단식을 하며 《국회》를 쳐다보고있는데 이른바 《국민의 대표》라는자들은 부정 부패로 저들의 리측만 차리고 녀성들을 희롱하며 《민생》의 간판아래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있으니 그들이 떠드는 《민생》이란 무엇인가를 똑똑히 알수 있다.

인민의 대표로 구성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와 《국민의 대표》들이 자기간의 리익을 위해 랑장판을 치는 남조선 《국회》, 여기에도 북과 남의 편안한 정치와 인권상이 비껴있다.

본시기자 김 정 혁

## 력사를 되새겨보아야

를 못박지 말자는 남측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매년으로 정해졌던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재연기하는데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고있다고 한다.

이미 지난 2012년 4월 미국이 남조선에 넘겨주기로 되어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리명박 《정부》가 2015년으로 연기해줄것을 간청하여 연기하더니 이제는 현 《정부》가 또다시 상전

에게 2020년이후로 연기해줄것을 애원하는 느न्द्र고 보지 못할 망동을 부리고있으니

본시기자

를 넘는 뻔뻔함에 치를 떨며 분노를 터렸다. 그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이 제정되어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투쟁하며 현 《정권》퇴진운동에 모든 힘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한편 이날 미국의 뉴욕, 애틀란타, 워싱턴, 필라델피아, 보스턴, 휴스턴 등지와 캐나다의 오타와에서도 동포들의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세월》호참사 특별법제정과 남조선집권자퇴진을 요구하는 재미동포들의 집회

### 미싸일방위체계의 구축을 반대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6일 서울의 광화문주변과 국방부청사 앞에서 미국의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을 반대하는 평화집회를 가졌다.

집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이날 국방부에서 남조선과 미국이 고위급회의가 진행되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회의에서는 미싸일방위체계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조건에 따라 전환여부를 결정하거나 서로 공유할수 있는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당국이 전환시기의 무기한 연기를 반대하는 립장을 명백히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미싸일방위체계의 핵심인 고고도미사일싸일이 남조선에 배치되면 남조선이 이 체계에 의한 작전의 전초기지가 되어 동북아시아의 갈등만 고조시키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미싸일방위체계의 구축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하는것이 남조선과 미국, 일본사이 랑해각성형태로 체결하게 될 군사협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체결되면 남조선과 일본사이 군사관계가 정보, 작전, 군수분야에도 확대되어 사실상 3각군사동맹을 형성하게 된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군사적으로 종속되게 하는 협정체결행동은 당사 중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시기자

들었습니까? 《새누리당》이 《혁신》을 한다구나.

예, 늘든 소리라구요. 하긴 권력지반이 모래우의 기둥처럼 흔들린다든가, 저들의 정책이 부철의 진 맥처럼 될 때마다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두 들까들었으니까지.

그러만 이번엔 뭐 《대혁신》이랍시다.

《개헌》도 한대, 《정치권》도 바꾼대, 《선거방식》도 달라한대 하여 《보수대혁신》으로 《새누리당》의 《신뢰》를 다지고 《우파정권재창출》을 목표로 한다는겁니다.

《대혁신》의 내용이 어떻게 든간에 기본은 보수의 집권을 계속 연장해보자는것입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때 《새누리당》은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며 한바탕 《대혁신》을 하였습시다.

《한나라당》간판에 《새누리당》을 덧씌워 당명도 바꾸고 《국민을 한그릇에 담는다.》고 당마크도 그릇 모양으로 변신하였으니 얼마나 신나는 《대혁신》입니까.

이전 《정권》과의 차별을 강조하며 《국민대통합》도 내뒀습시다.

결은 이렇게 달라졌을지 몰라도 부패한 정치현실과 인민들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시다.

가게부채는 《MB정권》때보다 더 늘어나 1 040조원 이나 되고 한 가정이 갈머진 가게부채액은 무려 5 800만원이나 되니 사회의 랑구화

만필

## 이번엔 《대혁신》?

것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지금의 《정권》을 《MB 2기정부》라고 평하고있는것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한그릇에 담는다.》는 말도 보라빛 《공약》이었습시다.

《새누리당》이 새 당마크를 내놓으면서 한다는 소리라 《미소를 상징하는 입술의 모양》이고 세워서 보면 귀모양이여서 《국민의 소리를 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호특별법 제정만 놓고보십시오.

유가족들은 단식을 한다. 상소문을 올린다 하며 사건, 건의 제출과 재발방지를 위해 예를 쓰지만 《새누리당》은 그들을 가리켜 《로숙자》라고 비하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수 없다고 하느소발통같은 고집을 세우기 때문에 《세월》호특별법은 다섯달째 공리공담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월》호유가족을 비롯

한 인민들의 분노의 목소리엔 아예 귀막고있습시다. 안 듣는게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그만두라고 얼마나 애레게 웨칩니까. 그런데도 들은척도 안하고 위잡아먹은 새빨간 그 입술로 《동맹》이니, 《안보》니 떠들며 한사코 강행하여 오히려 군사주권인 《전시작전통제권》전환만 더 연기하려고 합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니, 《대화》니 하면서도 녀절한 《탈북자》들을 내세워 반복

베라는 기를 쓰고 뿌려내고 있지, 북이 베라살포에 대 한 태도를 놓고 《대화》타령의 진정성을 보냈다고 했는데도 소극에 경의기식으로 아예 귀막고있지...

저들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대혁신》을 했건만 그 식이 장식이니 지금 떠드는 《대혁신》도 새빨간 거짓말이 분명한것입니다.

《개헌》을 하던, 《정치혁신》을 하던, 《선거방식》을 바꾸던 저들의 리익에 맞지 않으면 또 저들의 집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금시 뒤집어버릴건 뻔하니까요.

《민주공화당》에서 시작하여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이른바 《새누리당》까지 아무리 《혁신》하고 《쇄신》하고 해봐야 보수의 유전인자가 달라지지 않는 한 반인민적악행, 반민족적, 반통일적악행이 언제 가도 계속될것입니다.

《대혁신》이 아니라 썩고

병든 《새누리당》을 아예 뿌리째 들어야 합니다.

류 현 철